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예언에서 “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재건의 시기가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사도행전 3:19-21) 이 계획은 새로운 낙원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9:10에서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성한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과 두 번째 강림이 모두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강림 때, 그분은 에덴에서 인류에게 선고된 사형 선고를 무효화하기 위해 자신을 랜섬, 즉 상응하는 대가로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두 번째로 오십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신성한 율법을 어기기 전에 누렸던 완전함과 행복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다면, 돌아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축복을 지닌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실 때 세상에 일어날 혁명적인 변화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온 땅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보여주는 단편에 불과했다.

하나님의 은총이 돌아오다

사도는 “주님의 임재”로부터 상패한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주님의 얼굴로부터”라는 뜻의 그리스어 단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이 전형적인 동양적 표현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난다는 생각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사도가 제시한 전체적인 생각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드러남이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은혜를 비추시고, 잃어버린 에덴의 고향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다가올 회복의 시대를 예언했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남긴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과 관련하여 이를 언급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노는 잠시뿐이요, 주의 은혜에는 생명이 있나니, 밤에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에 대해 품으신 진노는 우리의 첫 조상들이 그분의 율법을 어겼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완벽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했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은 그들과 온 인류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온 세상은 슬픔과 죽음의 밤을 겪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 이 기간은 6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지 한 순간에 불과하며,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짧은 몇 해보다 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호심이 깃든 이 밤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은 처음에 인류의 구속자가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나타났으며, 그분이 구속하신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분을 두 번째로 보내심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다윗은 “그분의 은총 속에 생명이 있다”고 덧붙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에게 미소 지으실 때 질병과

죽음이 끝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와 슬픔, 그리고 죽음의 긴 밤이 기쁨의 아침으로 끝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사역

앞서 언급했듯이, 다가올 회복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 때 성취된 구속 사역 덕분에 가능해집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주님의 대변자로서 “내가 무덤의 권세에서 그들을 랜섬하고, 죽음에서 그들을 구속하리라. 오, 죽음아, 내가 네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네 파멸이 되리라. 회개는 내 눈에서 감추어지리라”라고 말하며 이를 언급합니다. 호세아 13:14

방금 인용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랜섬을 죽음의 멸망과 연관 짓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랜섬이 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18).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뜻에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랜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이는 정해진 때에 증거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5,6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주는 혜택은 오직 알고 믿는다는 조건 하에 개인에게 주어지므로, 사도는 이 지식이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지식을 증거로 듣게 될 그 ‘때’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 올 메시아 시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

베드로는 다가올 회복의 시기에 관한 사실들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증언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이 사실임이 드러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거룩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으며, 그는 회복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의 예언서 35장에서 그는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며, 병어리의

혀가 풀리고,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또한 백성을 위해 열릴 “큰 길”, 곧 거룩함이나 완전함으로 이끄는 길에 대해서도 말해 줍니다. 그는 이 복음 시대의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과는 달리, 이 대로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분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분명하여 배운 바 없는 평범한 여행자라도 길을 잃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는 그 시기에 관한 다른 예언적 진술들과도 일치하는데, 그때에는 주에 대한 지식이 바다를 덮는 물처럼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사야 11:9; 하박국 2:14

이사야는 또한 이 대도로에는 사자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베드로는 현재에 대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8). 사도 요한에 따르면, 사탄은 다가올 회복의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결박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1, 2). 따라서 생명의 길과 낙원으로 돌아가는 그 대로를 따라 사자가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자가 말한 것은 지극히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길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을 것이며, 어떤 사나운 짐승도 그곳으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니, 이런 것들은 그곳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 온 다양한 짐승들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짐승들 중 일부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해 온 온갖 종류의 야수 같은 정부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모든 “짐승들”은 멸망할 것이므로, “그곳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35:9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이 대로를 따라 “주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이 돌아와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얹고 시온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슬픔과 한숨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죽음에서 돌아와 다시 한번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계속 살아간다면 그분의 은총과 부유하게 하는 그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서 느꼈던 기쁨을 훨씬 뛰어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1; 잠언 10:22

예언의 관점에서 볼 때, 회복에는 부활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당시 살아 있는 세대의 일부에 한정한 회심을 가져올 것임을 기꺼이 인정하는 성경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복의 범위를 이 소위 회심에 국한시키려 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게 되고 “만물의 회복의 때”가 온다면, 이는 살아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축복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의 관점에서 볼 때, 회복에는 부활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욥은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으며, 그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느냐? 내 정해진 날이 다할 때까지, 내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리라.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께서 지으신 일을 기뻐하시리라.”라고 말하며 부활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욥기 14:14, 15). 이처럼 욥은 무덤에서 자신을 불러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동의하시며,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인자)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포괄적으로 확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28, 29

소돔 사람들이 회복될 것

에스겔은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으며, 그는 회복의 시기에 소돔 사람들처럼 악한 자들조차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꾸짖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상기시키며,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매인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의 상태로 돌아오면, 그때 너희와 너희 딸들도 예전의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에스겔 16:55

물론 이것은 악인들이 신의 율법을 순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구원받는다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돔 사람들에게 대해, 심판의 날에 그들이 특정 유대 도시의 주민들보다 더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0:15; 11:24). 순종을 조건으로 한 영생의 기회는 회복의 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며, 우리는 이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소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주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으며, 그들의 죄는 소돔 사람들보다 더 큰 빛을 받은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율법과 다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 쪽에서 더 큰 겸손이 요구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버나움에서 행해진 기적들이 소돔에서 행해졌더라면, 소돔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21-23). 소돔에서는 많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회개하고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 대부분은 회개하고 기쁜 마음으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활할 아이들

예레미야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였으며, 그는 회복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서 31장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부활에 관한 약속을 발견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에

의해 학살당한 아이들과 관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로서 죽음에 빠진 모든 이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줍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다시 품에 안고, 마치 그들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키울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애통함과 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녀들을 위해 울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그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훔쳐라. 네 수고가 보상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니, 그러므로 네 자손들에게 희망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자녀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31:15-17

선지자 다니엘도 다가올 회복의 시대를 예언하며, 그것이 현재 이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큰 환난의 시기를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수많은 자들이 깨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2:2). 하나님께서 우리 첫 조상 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실 때,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세기 3:19). 이는 아담의 사형 선고가 철회되고, 잠든 자들이 다시 생명으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회복의 복된 사역을 이토록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모스는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는데, 주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다시 세우고, 그 틈을 메우며, 그 폐허를 다시 일으켜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라.” (아모스 9:11). 다윗의 성막은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로 회복되었을 때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다윗이 지은 성막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겼다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 나라 위에 임했음을 의미했으며, 이는 큰 기쁨의 때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성막을 재건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대” 동안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해 일어날 일입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15장에 인용되어

있으며, 그 성취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축복을 받을 것임이 밝혀져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야고보가 말하였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택하시기 위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도 이와 일치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그 폐허를 다시 세우고, 그것을 회복하리니, 이는 나머지 인류가 주를 찾게 하려 함이요, 곧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13-17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과 두 번째 강림 사이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이 온 세상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방인 중에서 장차 올 왕국 사역에서 주님과 함께할 소수의 무리를 선택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이끌어 내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에 담긴 영광스러운 목표는, 이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이 이방인들 중에서 뽑힌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기에서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르러 모든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시온 산의 구원자들

오바다도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그의 예언의 마지막 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 예사우의 산을 심판할 것이며, 그 왕국은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다.” 보통 우리는 오직 한 분의 구세주만을 생각하며,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는 사역에 그분과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고 통치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으며, 그분의 통치는 세상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는 시온 산에 있는 이 구원자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시온 산 위에 어린 양이 서 계셨고, 그와 함께 이마에 그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인 백성,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가리켜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으나, 그들은 민족으로서 이를 거부했고,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상징적인 시온 산에 서게 될 예정된 구원자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 이방인들에게로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성한 가족 안으로 받아들여져 새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문이 되므로, 모두 아버지의 이름을 지녀야 합니다.

왕국 시대에 시온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자로 묘사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를 랜섬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희생적인 죽음까지 기꺼이 감수한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랜섬 사역으로 인해 약속된 축복을 그분과 함께 나누어 받게 됩니다. 선지자가 보여준 대로 구원자들이 시온 산에 서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왕국이 주님의 것이 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회복의 때가 될 것입니다.

말일의 축복

미가도 성스러운 선지자 중 한 명이었으며, 그는 회복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4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집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세워지고,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아오를 것이며,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많은 민족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할 것이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멀리 있는 강대한 나라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향해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다니엘서 2장 35-44절을 참조하면, “여호와와의 산”이 곧 여호와의 왕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왕국 시대에

세상에 베풀어질 회복의 축복이 얼마나 실질적인지 주목하십시오. 이 비유는 “마지막 날들”, 즉 큰 환난의 시기를 통해 옛 사탄의 질서가 제거될 그 시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즉 인류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초래된 파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움과 지침을 주님께 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국을 인정하게 되며, 전쟁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인 주님의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 또한 메시아 왕국의 그 새로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에 거하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과 행복을 묘사한 비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회복의 시대에 모든 이에게 풍족한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급은 영구적이며, 개인이 하나님의 법을 계속 순종하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보편적인 종교

하박국은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였으며, 그는 회복의 날에 대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리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2:14). 또 다른 거룩한 선지자인 스바냐도 그 때에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에 대해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그 때에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주리니, 그들이 모두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리라.” 스바냐 3:9

사탄의 눈을 가리는 영향력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의 빛에 의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주어질 순수한 언어, 즉 가르침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온 인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기쁜 회복의 날에 관해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신 선지자 스가라는, 왕국 시대의 깨달음을 주는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미칠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빛의 근원들이 더 이상 빛나지 않겠으나, 낮이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평범한 낮과 밤은 없을 것이니, 저녁이 되어도 여전히 밝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가랴 14:6, 7

여기서 제시하는 개념은 점진적인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먼저 살아 있는 세대를 통해 세워질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와 그 위에 사는 무수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새로운 왕국을 알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미신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그분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무덤에서 나오게 될 때, 그들은 참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율법을 따를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계몽하는 일은 왕국의 천 년 “날”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부분적으로는 빛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어둠이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눈먼 상태와 미신이 점차 제거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세상에 여전히 상징적인 어둠이 남아 있겠지만, 저녁이 되거나 그 영광스러운 날이 저물 무렵에는 온전히 빛이 비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의의 태양”의 계몽과 치유의 영향력이 어둠의 안개를 모두 흩어 버릴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한 지식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말라기 4:2

가시적인 축복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 통치를 통해 베풀어질 축복들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회복의 시기를 예언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축복들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깨달음으로, 에덴 동산 시절부터 혼란에 빠진 세상을 괴롭혀 온 무수한 미신적 믿음을 종식시키다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아담의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적 안정.

메시아 왕국의 이 모든 매우 실용적이고 만족스러운 좋은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회복의 때”에 대해 말할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영혼은 백성 중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매우 신중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3:23).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바로 이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양으로 비유된 이들에게는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염소들, 즉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리 가라,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 속으로”라고, 혹은 마지막 구절에서 보듯이 “영원한 형벌”로 가라고 말해집니다. 이는 그리스어 원문에 따르면 생명으로부터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31-46

이 비유가 보여주듯이, 그날 순종하는 자들, 즉 양의 무리는 원래의 통치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통치권은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전 세계적인 범위와 효과를 지닌 회복, 즉 낙원의 회복이라는 개념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죄로 병들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희망인가! 신성한 회복 계획이 시작됨으로써 지구에 일어날 변화들을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질병과 죽음이 사라짐으로써 일어날 변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므로 일어날 다른 변화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됨으로써 올 변화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 활동의 동기가 되는 원리가 이기심 대신 사랑이 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대비할 필요가 없게 될 때, 그 관점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해야 작은 행복의 일부로 이루어진, 나머지는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짧고 분주한 삶 대신, 그들 앞에 펼쳐질 영원한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룩한 선지자 중 한 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때,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니,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4

이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일 중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 그 자체조차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가 심장 박동의 철학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만큼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심장과 심장 박동을 창조하셨으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한때 생명의 맥박을 간신히 뛰게 하다가 결국 죽음의 참혹함에 굴복하고 말았던 수십억 명의 인간 가슴 속에서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실 능력이 넘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불완전한 인간 피조물이 계속 살아갈 수 없다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회복 사업은 머지않아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날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